

철학용어 ‘지양’의 정체

■ 강성현의 심우도

언어철학자·언론인



옥주현 사태로 헤겔의 변증법을 깨치다.
옥주현이 등장하는 뮤지컬 동네 논쟁에 ‘지양’이라는 말이 고개 들었다. 어떤 문제의 시비를 가리는 도구로 쓰인 이 말,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 ‘샤워기 물 낭비 사태’였다. 옥주현은 공연 날 ... 수증기가 목 관리를 위한 것으로... 배우와 관계자들이 ‘물이 낭비되니 지양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물을 쉬지 않고 튼다고...

- ‘모든 허위 사실 작성, 유포 등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당사 및 배우와 관련해 추측성 보도는 지양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하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그 단어를 썼다. 다른 기사지만 느낌이나 어색한(서툰) 어휘 전개가 흡사하다. 의도가 불결한, 낚시성 기사로 의심된다.

여러 매체가 약속이나 한 듯 이 기사를 실은 걸 보니 ‘대박’을 기대한 어떤 세력의 작전 아닌가 생각도 든다. 요즘 기자, 언론사들은 참 여러 가지 한다. 독자의 신뢰는 망가지겠고.

한자로 止揚이다. 止는 ‘멈추다’ 揚은 ‘오르다’의 뜻. 옳고 그름 시비(是非)처럼 ‘하지 말

자’는 止와 ‘하지’는 揚의 서로 어긋나는 속뜻 단어가 함께 붙었다.

한자는 하나하나가 한 단어다. 한 글자만 써도 되고, 몇 개를 붙여 새 뜻을 만들 수도 있다. 원래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쓰던 말이 아니었다. 명치유신(1867년) 이후 구미(歐美)의 문물(文物)을 받아들이는데 온 힘을 쏟은 왜(倭 일본)가 헤겔 변증법을 번역하며 만든 ‘용어’였다.

유럽과 미국의 선진문물을 먼저 받아들이는 구미에 굴종적이었던 것과는 탄판으로 이웃국가를 침략한다. 왜가 번역한 (한자로 된) 용어들이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쓰이게 된 계기다. 정반합(正反合)으로 기억되는 헤겔

변증법의 한 해설에서 이 용어의 의미를 보자.
-아우프헤벤(Aufheben)은 ‘폐기함’과 동시에 ‘보존하는’ 것이다. 이는 헤겔 철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의 하나다.

-헤겔은 이 단어의 이중적인 의미를 활용해, (변증법상에서) 낡은 질(質)이 부정되고 새로운 질로 옮겨 갈 때 낡은 질에 있던 것이 모두 부정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안의 적극적인 것은 새로운 질의 내부에 보존된다는 식으로 논리를 구성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독일이 단어 ‘아우프헤벤’을 헤겔은 ‘이러저러한 의미’의 변증법 (철학)용어로 채택했고, 일본이 이를 止揚이라 번역한 것을 우리가 쓰게 됐다. 이런 머리 아픈, 어려운 말을 어찌 다 ‘옥주현 사태’의 홍보팀이 ‘하지 말아달라’는 뜻의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쓴 것일까?

개 발에 편자, 상상해보자. 편자는 말굽에 대는 쇠조각이다. 이 편자처럼 ‘지양’이란 말, 뜻도 모르며 의미도 망가진 채 쓰는 이들이 꽤 있다. ‘옥주현과 개 발의 편자 언어’ 줌으로 기억될, 요즘 말 ‘황당 시추에이션’이다.

지양, 그 말 안 쓰는 게 낫다. ‘하지 말자’면 너무 충분하다.

한겨레신문의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는 객관적 진실인가? ①

■ 김동민 아르케

리영희기념사업회 운영위원



한겨레신문은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3월 6일부터 ‘노지원·김혜윤 기자 우크라 접경지대를 가다’라는 타이틀을 걸고 매일같이 현지 취재 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를 다시 가다’라는 타이틀로 20회 이상 연재중이다. 기자에게 현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사들이 진실을 전달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한겨레신문이 현지 취재라며 전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관련 보도는 객관적 진실을 담고 있는가? 아니라고 본다. 다른 모든 언론이 편향적이었다라든 한겨레신문은 진실을 주저해 보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언론학자들은 대개 언론이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형용모순이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이성적이라는 말이며, 그 안에 진실이 있다는 의미다. 주관적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는 가운데 오로지 이성의 판단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객관성이다. 한겨레신문의 우크라이나 전쟁보도는 이 본령에서 벗어나 있다.

6월 20일자 기사 ‘죽어서야 집으로... 가족

들은 관 위로 무너졌다 [우크라 현지]’는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 “군복을 입은 병사 여럿이 삼을 들고 새로 구멍이를 뚫다.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영웅’을 묻을 자리다. ...18일(현지시간) 낮 12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외곽 도시 부처에 있는 ‘영웅의 골목’ 묘지에선 이날도 장례식이 열렸다.”

주관적 감정을 배제한 이성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게 포퓰리즘이다. 기자들은 비교적 평화로운 수도 키예프에 머물면서 스케치한 기사를 송고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돈바스 지역이 아닌, 우크라이나 정부가 허가한 제한된 지역에 머물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시민들로부터

보고 들은 대로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 진중한 생각 없이 그런 현장을 보면 감정이 고조되기 쉬운데, 그걸 진실이라고 믿으며, 그런 감정을 독자들에게 이입시키고 있는 셈이다.

6월 22일자 기사 ‘밤 11시 통행금지... 적막 속에 불안이 스며든다 [우크라 현지]’를 보자. “우크라이나군이 수도를 탈환한 뒤 키이우 시민들은 걸은 일상을 되찾은 듯 보인다. 그러나 어둠이 내리고 야간 통행금지 시간이 다가오면 거리는 적막 속에 빠져들고 전쟁의 긴장감이 다시 도시를 엄습한다.” 기사인가, 소설인가?

한겨레신문은 6월 28일, 우크라이나 시민 10명에게 “이 전쟁의 끝은 어디일까요?”라고 물었다며 동영상상을 공개했다. 한결같이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로부터 재탈환할 때까지 전쟁을 이어가야 하고, 승리를 확신한다는 내용의 강경한 발언들이었다. 우크라이나 시민 10명이라고 했지만, 모두 키예프 시민들이었다.

우크라이나 전황을 전달하는 기사에는 빠짐없이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에 연대하는 한겨레에 후원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배너가 등장하는 것도 개운치 않다.

폭우가 지나고 나면 ①

■ 위영금의 시선

내고향만들기공동체 대표



밤새 천둥을 동반한 굵은 비가 내렸다. 낮에도 앞을 가려볼 수 없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고, 강물이 불어나면서 교통이 통제되었다. 이북지역인 북쪽에도 6월 28일 밤부터 7월 1일까지 개성과 강원도 황해남북도에 많은 비가 내린다는 경보가 있었다. 그리고 평양을 비롯한 일부지역에 위험 수위를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남북이 동시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현상은 어쩔 수 없다지만 사전 통지도 없이 황강댐의 방류는 불안한 예감을 넘어 괴망한 생각마저 든다.

갑작스러운 폭우는 북쪽에서 최악의 재난 상황이 된다. 도로와 철길이 파괴되고 농경지가 물에 잠기면서 눈앞에서 다 자란 농작물을 잃게 된다. 2020년에도 곡창지대인 황해도를 비롯한 일부지역이 폭우로 피해를 입었다.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최고 지도자가 황해북도 은파군을 방문하면서 식량이 우선 공급되고, 빠른 수해복구를 지시했다. 폭우로 농경지와 도로·철도만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식수 오염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생겨나 주민들을 괴롭힌다.

북쪽의 장마는 6월 말부터 길게는 8월 초까지 이어지는데, 폭우가 내리면 좁은 강이 삼

시에 불어나고 심하면 강폭을 넘는다. 수면이 낮은 곳은 물난리에 집안이 수라장이 되는 데, 그나마 집이 통째로 밀려가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다. 때로는 돼지며, 닭이며 집안살림살이들이 동 동 떠나려 온다. 그걸 견어내려다 오히려 물살에 밀려가므로 말거나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 우비도 넉넉하지 않아 비닐을 가져다가 비옷을 만들었다. 해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상량보다 많은 폭우가 내리면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이다. 거기에 산사태까지 생기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남쪽에는 강하천 정리가 잘되어 있어 폭우가 쏟아져도 그 많은 빗물이 하수구를 통해 순간에 빠진다. 폭우가 지나간 뒤 개천에 나

가면 무섭게 아우성치며 흐르던 강물이 둔덕진 곳에 홍수의 잔해만 남겨놓고 흠뻑한 실개천이 된다.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하고 번개가 지나치면 잠시 전원을 꺼놓는다. 이러한 간단한 대비는 어렵지 않아 때로는 커피잔을 들고 비 내리는 소리를 피아노 선율처럼 감상하기도 한다. 실시간 재난상황을 알려주고 있어 편리하고, 이동수단이 좋아 우비만 챙기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북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환경이다.

벼락과 천둥을 동반한 폭우는 다른 성질이 부딪히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중부지역에 몰려든 정제전선은 하필이면 경기 수도권에, 황해도와 강원도, 서해안의 북쪽으로 흐르내려다. 남쪽이 소풍도 못하고 있는데 폭우까지 쏟아놓으니, 무책임한 방류에 사람이 다치지 않을까 걱정된다. 위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없고 북쪽에서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면 도움도 청하고, 방류할 때는 이웃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암치 뉴스를 접할 때마다 지척에 고향을 두고도 나눌 수 없는 풍요로움에 반쪽은 가난한 마음이다. 폭우가 지나면 폭염이 시작되니 남북한 모두 별일 없이 정제전선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사설

학교 급식실 인력 확충 시급하다

급식 노동자 절규 받아들이 산재예방 대책 세워야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열악하고 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다. 조리 때 발생하는 매캐한 연기와 청소할 때 사용하는 독한 세정제 증기를 들이마시며 일을 해야 한다. 인력도 부족해 이른바 ‘만성골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폐암에 걸리고 끝내 숨지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경기지부는 얼마 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에게 “급식 노동자가 업무에 시달려 압으로 사망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기 위해 성실이 일했으나 지금 골병에 시달려 죽음 앞에 놓여있다”며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임태희 교육감 출근을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배치기준 테스크 포스 정상화 ▲대체인력제도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등이다.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지난해 4월 27일에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주최 ‘경기도내 학교급식실 집단 산업재해 고발 기자회견’이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렸다. 당시 광명시 한 중학교의 급식실 노동자가 이렇게 절규했다. “튀김·볶음 조리 때는 3시간 가까이 가스·연기·열기·수증기·기름 냄새를 다 마시고 조리 후에는 대형 부침기와 볶음 솥이 식기 전에 화학약품을 발라가며 세척하면 머리가 어지러웠으며 속이 메스꺼웠다”고. 이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급식노동자들은 작업 도중 쓰러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 2019년 발간한 ‘조리 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과 호흡기 건강영향’ 학교급식 종사자를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를 보면 심각하다. ‘고온의 튀김·볶음·구이요리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흙(Cooking Fumes)’엔 미세먼지와 1급 발암물질인 벤젠·포름알데히드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섞여 있다는 것이다. 이 성분을 국제암기구는 발암 발생 가능물질로 분류한다.

실제로 몇 해 전 수원시 모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조리실무사가 폐암에 걸려 투병생활을 하던 중 사망했다. 같은 곳에서 일하던 조리노동자는 뇌출혈로 쓰러졌다. 안양시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조리실무사도 중 락스 중독으로 쓰러졌다. 이들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현재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신청은 총 64건이다.

이처럼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급식실 유해요인은 제거되지 않고 있다. 학비노조 측은 급식 노동자 사망의 핵심 원인은 인력부족이라고 주장한다. 공공기관 급식노동자의 식수인원은 한 사람당 70명이지만 교육청은 150명이라는 것이다. 이에 학비노조 경기지부와 경기교육청은 급식실 적정인원 배치를 위한 ‘배치기준 테스크 포스’를 구성했다. 그러나 노조는 교육청이 면회성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교육청이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산재예방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학생들이 불합리한 계급 사회를 배우고 있다”는 이들의 외침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이들이 건강해야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도 생명력이 깃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 조현정의 오늘의 성찰

예술(藝術)



목사·예술수리기 대표

예술이란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고, 아름답았던 것이 선명해지며, 복잡했던 것이 단순해지고, 우연이었던 것이 필연이 되는 것과 같은, 사람의 마음에 대한 작용을 말한다. 진정한 예술가는 언제나 모든 것을 단순화한다. (아미엘)

보통 사람은 생각을 사물에 맞추지만, 예술가는 사물을 자신의 생각에 맞춘다. 보통 사람은 자연을 불변하는 것, 고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술가는 자연을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 위에 자신의 존재를 새긴다. 예술가에 대해서는, 불복종의 세계도 지극히 순종적이 되어 그의 뜻에 따른다. 그는 흙덩이나 돌맹이에 인간성의 웃을 압하고 그것을 이성의 표현으로 탈바꿈시킨다. (에머슨)

경쟁심으로는 어떤 아름다운 것도 만들 수 없고 오만한 마음으로는 어떤 고귀한 것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존 러스킨)

진정한 학문과 진정한 예술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내면적인 것으로, 학문과 예술의 봉사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희생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수행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외면적인 것으로, 그의 학문

과 예술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학문과 예술은 폐와 심장처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한 쪽이 고장 나면 다른 쪽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진정한 학문은 일정한 시대, 일정한 사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진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의 의식에 반영한다. 한편, 예술은 그 진실을 지식의 영역에서 감정의 영역으로 옮긴다.

예술에 종사하는 것은 비록 그것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광장하고 상한 일은 아닐지라도, 사람들을 합일시키고 사람들 속에 선풍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한 좋은 일이다. 그러나 현대의 부유한 계급에 의해 장려되고 있는 예술은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사람들의 내면에 좋지 않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무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고 해야 할 것이다.

주요 출처 : 톨스토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경기신문

2002년 6월 15일 창간
www.kgnews.co.kr

문학 가-00224(일간)

ISSN 2635-978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발행·편집인 김 세 환 심 흥 식	인쇄인 박 장 희 김 대 훈	인턴본사사장 이 한 성 인턴편집국장 정 민 교
--------------------------	-----------------------	------------------------------------

본사 : 016949

용인시 기흥구 홍덕4로 15번길 3-11
대표전화 : 031-268-8114

수원본사 : 016702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대표전화 : 031-268-8645

인천본사 : 02155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대표전화 : 032-442-8114

광고문의 : 전화 031-268-8330 팩스 031-268-8333

구독신청 : 전화 031-268-8336

구독료 : 월 15,000원 / 1부 : 1,000원

독자들의 솔직하고 담백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보내주시는 원고는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31-257-4459 / 1부 : 1,000원 / 팩스 031-268-8393 / e-mail opinion@kgnews.co.kr

※ 외부 기고는 경기신문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